

사·부·대·중

소임 살기

대중이 화합하는 것은 승가의 기본원칙이다. 그런 까닭에 스님들은 어지간하면 서로 허물을 말하지 않고 미움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하여도 자칫 오해를 불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끼리 간혹 "선방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거중에 시비가 생겨 대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안거처를 떠나 처음 안거를 시작했던 대중이 원만한 화합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정월 보름 겨울안거를 마친 수좌스님들이 결말을 지고 나와 은사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도반들을 만나 한철 수행의 결실을 나누는 만행철이다. 정진의 기운이 충만한 도반스님들의 면모를 대하면 부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정진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가 반갑지만, 몇 군데 불화의 소식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역시 말로 인한 시비가 원인이 되었다.

스님들이 모이면 하루를 지내든 평생을 같이 살든 '소임'을 뽑는다. 승가의 소임자는 화합할 수 있는 스님이라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야 한다. 그래서 수제의 기준이 되는 법남 순으로 소임을 정하지만, 대중을 책임지는 입승(入繩) 소임만은 조실스님의 지명이나 대중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입승은 목수들이 사용하는 먹줄을 통기는 도구와 동의어로, 대중살이의 기준과 원칙을 담당한다. 대

중생활의 기준과 원칙은 입승 소임자가 맡지만 화장실 청소에서 법당 예불 올리는 것까지 모든 소임과 소임자에게는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 기준과 원칙이 지켜질 때 대중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화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일을 물어두거나 덮어두는 경우가 있다면, 그 화합은 실로 위태로운 것이어서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다. 소임자의 평등심이 무너지고 직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중은 불안하게 되고 승가의 수행과 위상도 흔들린다.

모든 사람에게 역할이 있듯이 스님들도 소임을 피할 수 없다. 수행정진을 잘 하는 것이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지만, 소임을 잘 사는 것 또한 불문에 감사하는 중요한 일이다.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6월 문을 열었다. 여의도 불교문화원은 99년 9월 여의도 지역의 포교 거점 마련과 언론·정치·금융 등 여론주도층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7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다. 120평의 넓은 공간에 법당 회의실 차담실 등을 마련하여 여의도 지역에 있는 KBS MBC SBS 등 방송사 불자회와 금융단체 불자회 연례인 불자회의 신행공간으로 제공하고 불교문화를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과정부터 문제가 터졌다. 문화원 개원을 추진하던 한 스님이 공금을 가지고 잠적해 무려 1년 넘도록 개원이 늦춰지기도 했다. 문을 열어놓고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건물관리상 밤 10시 이후 출입을 통제해 스님이 상주할 수 없었다. 입주할 건물의 상황도 살펴볼 지 않은 경솔함이 낳은 결과였다.

폐쇄되기 1년여 동안은 상주하는 스님도 없이 직원 1명이 법당을 지키는 꼴이었다. 인근에 있는 직장불자회들이

문단은 불교 문화원

한달에 한번 이곳에서 모임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여의도 불교문화원의 역할이었다.

중앙종회 총무부와 관련한 여의도 불교문화원 조사소위의 조사에 따르면, 여의도 불교문화원 개원 이후 8억원의 삼보정재가 투입됐다. 보증금 4억5000만원은 환수하겠지만, 3억5000만원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폐원하게 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전 집행부의 일에서 현 총무원 집행부의 책임은 크지 않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1년여의 기간이 지나서야 폐원 결정을 내렸다. 포교원으로 관리를 이관해 문화포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었다. 스님의 상주가 어려우니 다른 빌딩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로 후학을 경계했다. 중단이나 사찰 모두 제2의 여의도 불교문화원과 같은 경우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교단 자정운동’ 범종교계 확산

종교계에 거센 자정-개혁 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런 흐름이 개별 종교 차원을 넘어 종교간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마지막 성역'으로 불리며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범종교계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신문의 '종교개혁' 토론 마당에 쏟아진 논란들은 △종교 문제는 종교인에게 맡겨둬야 하는가 △종교 권력과 부패는 '일부' 교회·사찰에 국한된 문제인가 △교회·사찰의 성장제일주의가 종교의 근본정신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종교기관의 세금 문제 등을 놓고 형성되고 있다.

종교NGO 자정운동

수행자 및 성직자의 자질, 재정 공개 등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각 종교 NGO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기독교신사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관계자들은 6일 서울 견지동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도입을 갖고 종교계의 쇄신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각 종교 내부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되찾도록 오는 4월 3일 '종교개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종교 NGO들은 첫 공동 활동으로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 심포지엄은 종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민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며 '종교개혁운동의 정보화 및 방향성' '종교개혁을 위한 NGO연합활동에 대한 연구·실천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토론한다.

향후 각 교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겠지만, 최근 도박사건의 연루로 총무원 기획실장이 사임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과 각

재정운영 불투명  
세속적 권력화  
비민주적 운영  
“더 두고볼 수 없다”

종교 NGO 단체들  
‘네트워크’ 준비

‘존경받는 불교’  
사부대중 나서자

성을 통해 종교의 제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낼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종교개혁인가  
그렇다면 왜 화필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가.  
종교 NGO들은 '사회가 참을 수 없이 힘들어졌지만 종교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못 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더 해로운 곳도 있다. 이대로 두면 점점 더 부패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종교계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유일한 성역'으로 존재했다는 점, 일반 사회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종교계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도 종교계 안에서 개혁운동이



◊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조계종 기획실장의 사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고위직에 대한 공직청구(淸究) 제정과 인사검증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높은 도덕성과 청결성을 갖고 있어야 할 종교계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민주성, 사업 추진의 공개성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데 아직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불교혁신의 과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불교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행정진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욱 총회발전재가봉사단장은 "먼저 수행기풍을 확립한 후 종단 소임자의 검증 및 청구 제도 마련, 출·재가의 원활한 의사소통, 재가자의 주인의식과 참여 확대, 신도 조직의 활성화 및 신행 혁신, 비구니 위상 제고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과제들이 하나 둘 해결될 때 종권의 세속적 정치권력화와 오래된 분규, 교단내 불평등(비구니 및 재가자 차별), 위계 질서 문란, 문중·파벌 이기주의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됨은 물론이다.

혁신 주제 '사부대중'  
이 같은 불교혁신의 과제는 출가 승단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가자들도 승단에 대한 비판에 앞서 불교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중심의 개인 신행형태를 불교와 사회, 국가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자기혁신적 신행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  
박수호 고려대(사회학) 강사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상호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임을 인정함으로써 혁신의 공동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부대중의 불교 혁신은 철저히 불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토론과 관용, 자비의 정신으로 서로 감싸안으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불교로 거듭나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4성계급의 타파와 인간 존엄성을 설파했던 참 개혁가인 부처님의 서원이자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인터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비판 넘어 대안제시 노력”

“출가정신의 회복없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결단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자정과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불교가 새로운 세기 인류사회를 이룰 참된 종교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한 종교·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박광서(서강대 교수) 상임대표는 “종교계 자정과 개혁은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종교를 초월한 NGO들의 연대활동은 각 종교의 해결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연대기구는 재정의 투명성·평신도의 운영 참여 등 주요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종교가 함께 다룸으로써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교의 문화활동, 천주교의 지역 사회 접촉 등 각 종교의 장점에 대한 정보



도 교류할 예정이다.  
오는 3월28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재가연대 창립2주년을 맞아 교단자정 지원감시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식도 갖는 박 대표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 자정운동이 시대에 뒤처진 무기력한 불교에서 중생교와 사회교를 치유하는 진정한 대승불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부대중이 모두가 삶의 현장이 곧 수행의 장이라는 투철한 결사정신으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305호) 본 란의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하다' 기사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의 하나로 예시한 인터션(whatszen.com/next-board)에 관한 본문 기사 내용과 사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회두선'은 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의 '인터션' 코너는 왜곡된 선 수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만든 토론장의 명칭입니다. 회두선 운영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독자 여러분을 혼란케 한 점 사과드립니다.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흡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이란 북쪽이만 위쪽에 부암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감 대 진 임장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짤 수 있는 바로 건축이 가능한 황토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참선교육**

**■ 참선교육 53기 안내 ■**

한생각 일어났을 때 단속하지 못함을 두려워 할지언정 깨닫지 못할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조사들의 정통참선법인 화두선을 중지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은 본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53기 참선교육(하얀거전)에 동참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

■ 기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4월 3일 (5회)  
■ 일시 :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 장소 : 본회 선방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 일 자        | 교육 일 자  |
|------------|---------|
| 3월 6일 (화)  | 참선의 자세  |
| 3월 13일 (화) | 참선의 종류  |
| 3월 20일 (화) | 선종발달사   |
| 3월 27일 (화) | 화두의 중요성 |
| 4월 3일 (화)  | 화두 참구법  |

■ 동 참 비 : 3만원 (교재 교재비)  
■ 교재제공 : 참선교육 책 1권, 참선교육 테이프세트 (10개) 대형 선종발달사, 도표

■ 접수문의 : ☎ 732-5960

\* 강남 선방 (봉은사 입주문 옆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참선교육 3월 8일 ~ 4월 6일까지 5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강남선방))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